

삼성SDI, PDP 출하량 세계 신기록

10월말 최초로 12만대 돌파 ... 다면취 공법 적용 2005년 170만대 목표

삼성SDI가 충남 천안공장에서 생산하는 PDP의 월간 출하량이 10월 말 세계 최초로 12만대를 돌파한다고 발표했다.

2003년 10월 출하량 3만7000대와 비교할 때 224% 늘어난 것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월간 세계시장 점유율 30% 가량이며 5-6년 먼저 양산을 시작한 일본기업들의 10월 예상 출하량 5만5000-6만5000대에 비해 약 2배 실적이다.

삼성SDI는 “2001년 7월 PDP 양산을 시작한지 3년4개월만의 성과로 한장의 유리원판에서 여러 대의 PDP를 생산할 수 있는 다면취 공법을 1, 2라인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다”고 설명했다.

삼성SDI는 2003년 33만대였던 판매량을 2004년에는 대폭 늘어난 90만대로 목표를 정한데 이어 출하량 급상승의 여세를 몰아 2005년에는 약 17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.

또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월 12만대 규모의 제3 생산라인이 2004년 말 완공되면 최대 생산능력이 13만대인 1, 2라인과 합쳐 최대 월 2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돼 경쟁기업들의 추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시장전문 조사기관 Display Research에 따르면, 세계 PDP 시장은 PDP TV 가격인하, 디지털방송 확대 및 홈시어터 시스템 보급 등으로 2004년 354만대에 이어 2005년 628만대, 2006년 1013만대, 2007년 1205만대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<화학저널 2004/11/01>